

## 인과율에 관한 반사실적 분석과 그 수정\*

송 하 석

【주 제】 인식론, 인과율

【주제어】 인과관계, 반사실적 분석, 사건과 사실, 비대칭성 논제, 루이스(D. Lewis)

【요약문】

루이스는 두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인 상례적 분석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사실적 분석을 제시한다. 즉 사건  $c$ 가 다른 사건  $e$ 의 원인이기 위해서는 1)  $c$ 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e$ 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 $\sim O(c) \square \rightarrow \sim O(e)$ ], 2)  $c$ 가 발생했었다면  $e$ 도 발생했을 것이다 [ $O(c) \square \rightarrow O(e)$ ]는 두 가지 반사실문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과율에 대한 이러한 반사실적 분석은 인과율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기본적인 직관과 일치하는 설득력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두 사건 사이의 반사실적 의존성에는 비대칭성이 있어서 결과는 원인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하지만 그 역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c$ 가  $e$ 의 원인이기 위해서  $c$ 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e$ 도 발생하지 않아야만 하지만,  $e$ 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c$ 는 발생할 수도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e_1$ 이  $e_2$ 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하지만 루이스의 지적과는 반대로  $e_1$ 이  $e_2$ 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임으로써 그의 반사실적 의존성의 비대칭성논제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또한 필자는 이러한 반론에 대한 가능한 루이스의 답변을 그의 사건에 관한 설명을 통해서 구성해 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구성된 답변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함을 보이고 이상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과율에 관한 수정된 반사실적 분석을 제안할 것이다. 그 수정된 분석안은  $c$ 가  $e$ 의 원인이라는 것을 “ $c$ 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e$ 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같은 조건에서  $c$ 가 발생했었다면  $e$ 도 발생했을 것이다”가 참인 경우로 설명한다.

\* 이 글은 1996년 분석철학회 추계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글을 당시의 논평과 토론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논평을 하여 주신 권병욱 선생님(고려대)과 토론에 참여하여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할 드린다.

즉 루이스 도식 중 두번째를  $\sim O(c) \square \rightarrow (O(c) \square \rightarrow O(e))$ 라는 이중적 반사실문으로 수정한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수정안은 루이스의 분석이 갖는 난점을 해결할 뿐만아니라 루이스처럼 인과율에 관한 설명을 사건과 사건 사이로 제한할 필요가 없음을 보임으로써 인과율의 수정된 반사실적 분석이 우월함을 보일 것이다.

## I. 들어가는 말

철학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인과율에 관한 논의는 여러가지 중요한 철학적 함의를 갖는다. 그 중의 하나는 그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나 법률적 의무의 소재를 정확히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브루터스가 씨이저를 찌른 사건과 씨이저가 죽은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면, 우리는 씨이저의 죽음에 대해 브루터스는 도덕적,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면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건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자연과학적 지식의 형성에도 공헌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개의 사건이 인과관계에 있음을 밝힐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철학적 과제임에 분명하다. 그러면 어떤 두 사건이 인과관계에 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훨(D. Hume)은 두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원인을 하나의 대상에 의해서 잇달아 나오는 대상으로, 그리고 먼저본 대상과 비슷한 것들은 나중의 대상과 비슷한 것들에 의해서 잇달아 나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혹은 **달리 말하면** 전자의 것이 존재하지 않았었다면 후자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1)</sup>

1) D. Hume,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eds.) L. A. Selby-Bigge & P. H. Nidditch 3rd edi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75) 76-77쪽.

그러나 흄의 이 정의는 “달리 말하면”이라는 구절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구절의 앞의 정의(D1)와 뒤의 정의(D2)는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 아니다. 즉 D1은 인과율을 두 사건 사이의 상례성(regularities)에 의해서 설명하는 상례적 분석인 반면에 D2는 인과율을 반사실적 의존성에 의해서 설명하는 반사실적 분석이다. 흄의 인과율에 대한 전통적 해석은 D1에 따라 두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그 사건 사이의 근접성, 선행성, 항상적 연결(constant conjunction)이 가져다주는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일 뿐이라는 상례적 분석이다. 흄의 인과율에 관한 상례적 분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사건 c가 사건 e의 원인이다”  $\leftrightarrow$  i) c와 같은 종류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e와 같은 종류의 사건과 연결되어 발생하고 ii) c는 e보다 앞서 발생한다.

루이스(D. Lewis)는 이와 같은 인과율에 대한 상례적 분석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D1을 수정하여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보다는 D2에 주목하여 인과율을 반사실적 의존성에 의해서 설명하는 반사실적 분석을 제시한다.<sup>2)</sup> 다음의 반사실적 문장을 생각해 보자.

(가) 만약 브루터스가 씨이저를 찌르지 않았더라면, 씨이저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위와 같이 반사실적 문장에 나타난 두 사건 사이에 있는 반사실적 의존성으로 그 두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인과율에 대한 반사실적 분석은 인과율을 설명하는 매우 유망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루이스가 인과율을 반사실적으로 분석한 이래, 많은 반론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에 대한 비판은 그의 분석이 인과율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넓은 개념이라거나, 혹은 너무 좁은 개념이라는 것에서부터 인과적 선점(causal pre-emption)의 문제와 초과결정(overdetermination)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등 다양하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그의 반사실적 분석을 수정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는 시

2) D. Lewis, “Causation”, *Journal of Philosophy* 70 (1973). 이 글은 *Philosophical Papers* vol. II(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159-172쪽에 재수록됨. 앞으로 루이스 글을 인용할 때는 이 책의 페이지로 표시한다.

도는 매우 의미있는 것일 것이다.

이 글은 인과율에 대한 설명 중에서 루이스의 반사실적 분석이 가장 유망한 것이라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여, 그의 분석을 상세히 살펴본 후 그 이론이 갖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설명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하나의 수정안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필자가 제안하는 수정된 반사실적 분석은 루이스가 인과관계를 개별적 사건들 사이의 관계로 제한하는데, 그 제한이 불필요함을 보이고, 그의 분석이 야기한다고 주장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 II. 루이스의 인과율에 대한 반사실적 분석

루이스는 인과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인과적 연쇄(causal chain)에 의해서 연결되고, (2) 인과적 연쇄는 어떤 종류의 반사실적 의존성(counterfactual dependence)의 연쇄이며, (3) 관련된 반사실성은 그 반사실문의 애매함을 표준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관계이다.”<sup>3)</sup> 즉 일련의 사건들  $e_1, \dots, e_n$ 에서  $e_n$ 은  $e_{n-1}$ 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하고  $e_{n-1}$ 은 차례로  $e_{n-2}$ 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하며 마침내  $e_2$ 는  $e_1$ 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할 때 그 일련의 사건들은 인과적으로 연쇄되어 있고,  $e_1$ 과  $e_n$ 은 인과관계에 있다고 말하여질 수 있다. 요컨대  $e_1$ 과  $e_n$ 의 인과관계는  $e_1$ 과  $e_n$  사이의 반사실적 의존성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e_1$ 과  $e_n$ 이 반사실적으로 의존된다는 것은 개별적 사건  $e_n$ 의 발생여부가 개별적 사건  $e_1$ 의 발생여부에 의존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루이스는 어떤 개별적 사건  $c$ 가 다른 개별적 사건  $e$ 의 원인이라는 것을 다음 두 문장이 모두 참인 경우로 설명한다.

- 1)  $c$ 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e$ 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sim O(c) \square \rightarrow \sim O(e)$ ]
- 2)  $c$ 가 발생했었다더라면  $e$ 도 발생했을 것이다. [ $O(c) \square \rightarrow O(e)$ ]

3) D. Lewis, “Counterfactual Dependence and Time’s Arrow”, 앞의 책 35-36쪽.

인과율에 대해 우리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통찰 두가지는 결과가 발생하는가 발생하지 않는가는 원인이 발생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의존한다는 것과 원인을 만들어냄으로써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원인이란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과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동시에 그것이 발생해야만 결과의 발생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sup>4)</sup> 인과관계에 대한 루이스의 이러한 반사실적 분석은 이와 같은 두가지의 직관적 통찰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1)은 예방자로서의 원인을 그리고 2)는 산출자로서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갑돌이가 갑순이와의 결혼을 앞두고 갑돌이는 갑순이와의 결혼과 자신의 미래의 행복 사이의 인과성을 알고 싶어한다고 가정해 보자.<sup>5)</sup> 루이스의 위의 분석에 따라서 그 인과성을 조사해 보면, 3) “갑돌이가 갑순이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와 4) “갑돌이가 갑순이와 결혼한다면 그는 행복할 것이다”가 모두 참일 때 갑돌이의 갑순이와의 결혼과 그의 미래의 행복은 비로소 인과관계를 갖는다. 즉 루이스의 도식은 예방자를 나타내는 3) 뿐만 아니라 산출자를 나타내는 4)도 만족되어야 두 사건이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좋은 두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시간적 선행성의 개념으로 설명하여 앞선 사건이 뒤의 사건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는데, 주지하다시피 이것은 많은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루이스는 위의 반사실적 분석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의 구별은 시간적 선행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사실적 의존성의 방향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c$ 가  $e$ 의 원인임을  $c$ 가  $e$ 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한다는 사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e$ 가  $c$ 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e$ 가  $c$ 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지  $c$ 가  $e$ 에 의존하는 것이 아님에 주목하면서  $c$ 와  $e$  사이에 비대칭성(asymmetry)이 있음을 지적한다. 즉 어떤 사건( $e_1$ )이 다른 사건( $e_2$ )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e_2$ 의 발생이  $e_1$ 의 발생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함으로 설명되고 이 경우  $e_1$ 의 발생은  $e_2$ 의 발생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원인을 그것이 없다면 결과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예방자(preventor)로서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라면, 원인을 그것이 있어야만 결과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산출자(producer)로서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이 두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5) 이 예는 분석철학회 발표시 논평을 하여 주신 권병욱 선생이 지적해 준 것이다.

루이스는 이러한 원인과 결과 사이에 분명한 비대칭성이 있음을 주목하고 그 비대칭성이야말로 원인과 결과를 구별하게 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반사실적 문장의 애매함에 대한 해석으로는 표준적 해결(standard resolution)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말하는데 반사실적 문장에 대한 표준적 해석은 스텔네이커-루이스(Stalnaker-Lewis)의 의미론으로 알려진 것으로 요약해 말하면 반사실문의 진리값은 현실세계와 가장 유사한 가능세계에서 전건이 참인 경우에 후건의 진리값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1)은  $c$ 가 발생하지 않은 현실세계와 가장 유사한 가능세계에서  $e$ 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참이고, 2)는  $c$ 가 발생한 현실세계와 가장 유사한 가능세계에서  $e$ 도 발생한다면 참이다. 그리고 루이스는 “이 표준적 해석에서는 역방향(back-tracking)의 논증은 잘못”<sup>6)</sup>이라고 말한다.

내가 지금 종이 위에 실제로는 ‘다윗’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데이빗’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반사실적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그 종이 위에서 ‘다윗’을 보게 될 실제의 내일과 ‘데이빗’을 보게 될 가정 하의 내일은 서로 다를 것이다. 루이스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의 어제와 가정하의 어제도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를 묻는다. 이에 대해 루이스는 “가정하의 어제가 어떤 것일가에 대해서 분명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한다.<sup>7)</sup>

물론 루이스가 표준적 해석 즉 정방향(forward-tracking)의 해석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전제가 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세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고려하는 보다 적극적인 해석인 역방향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두 사건  $c$ 와  $e$ 가 반사실적 관계에 있을 때, 그 관계는 정방향에 의해서든 역방향에 의해서든 한 가지 방향에 의해서만 성립한다. 즉 반사실적 관계에 있는 두 사건은 항상 비대칭적이다. 따라서  $c$ 가  $e$ 의 원인이기 위해서는  $c$ 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e$ 도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지만  $e$ 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c$ 는 발생할 수도 있었어야 한다. 즉  $c$ 가  $e$ 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e$ 의 발생은  $c$ 의 발생을 필연적으로 함축하지만  $c$ 의 발생이  $e$ 의 발생을 필연적으로 함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루이스의 주장에 따르면 첫째 인과율의

6) 위의 글, 34쪽.

7) 위의 글, 32쪽.

방향은 반사실적 의존성의 방향이고, 둘째 미래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하지 일반적으로 과거의 사건이 미래의 사건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루이스의 이러한 설명으로부터 일반적인 인과관계에서 원인이 결과에 선행하는 우연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루이스의 이러한 주장을 사건 비대칭성 논제(event asymmetry thesis)<sup>8)</sup>라고 부르고 그 논제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개별적 사건  $c$ 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개별적 사건  $e$ 도 발생하지 않았을 그런 개별적 사건의 쌍은 있지만, 반대로  $e$ 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c$ 가 발생하지 않았을 그런 개별적 사건의 쌍은 있을 수 없다.

간단히 말해서 이 논제는  $\sim O(c) \square \rightarrow \sim O(e)$ 는 참일지라도,  $\sim O(e) \square \rightarrow \sim O(c)$ 는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루이스의 논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의 주장은 "과거가 달랐었다면 미래는 달라졌을 것이나, 미래가 달랐었다고 과거가 달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요약하여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래는 과거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하지만 그 역은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 는  $c$ 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하므로  $c$ 는  $e$ 의 원인이 되지만 그 역은 옳지 않다는 것이 루이스의 논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가 다르다고 가정할 경우 과거도 달랐어야 하는 반사실적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다음의 반사실문을 생각해 보자.

(나)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1980년에 재취임했다면, 그는 1979년에 암살되지 않았을 것이다.

(If Mr. Park had been inaugurated in 1980, he would not have been assassinated in 1979.)

(나)와 같은 문장은 옳은 반사실적 문장이다. 즉 루이스의 주장대로 1979년 암살 사건( $e_p$ )이 있었다면 1980년 대통령 재취임( $e_r$ )은 없었을 것이고  $[O(e_p) \square \rightarrow \sim O(e_r)]$ , 따라서  $O(e_p)$ 는  $\sim O(e_r)$ 의 원인이다. 즉 1979년의 암살사건의 발생으로 박

8) 루이스의 이러한 주장을 이렇게 부른 사람은 K. Vihvelin이다. 그녀의 "Freedom, Causation, and Counterfactuals" *Philosophical Studies* 64(1991)과 "Causation and Counterfactual Dependence"(199+)참조.

정희는 1980년 대통령에 재취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1980년 박정희의 재취임이 있었다면 1979년 암살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O(e_r) \square \rightarrow \sim O(e_p)]$  박정희의 1979년 암살사건도 1980년 그의 재취임 사건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나 박정희의 재취임 사건  $[O(e_r)]$ 이 그가 암살되지 않음  $[\sim O(e_p)]$ 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루이스가 비대칭성 논제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를 구별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과거(1979년 박정희 암살사건)도 미래(1980년의 박정희의 재취임)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반사실적 의존성에 의한 원인과 결과의 비대칭성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는 루이스의 주장은 수정이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루이스는 인과관계에 대한 반사실적 분석을 “보도, 전쟁, 대화, 충돌, 산책, 죽음, 터치다운, 낙하, 키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사건들 사이의 인과관계”로 제한한다.<sup>9)</sup> 그리고 그는 “반사실적 의존성은 그것이 사건들 사이의 관계일 때만 인과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과율에 관한 분석은 그전에 사건들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sup>10)</sup>고 말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반론에 대하여 루이스는 (나)의 전건은 사건(event)이 아니라 사실(fact)이라고 주장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자신의 분석은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로 한정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사실적 분석에 의해서 설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과 사건 또는 사실과 사실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것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의 비대칭성논제의 반례가 될 수 있는 반사실적 의존관계에 있는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

어제 저녁에 갑돌이의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갑돌이는 급한 나머지 옆에 세워둔 야구 방망이를 들고 휘둘렀는데, 거실의 난로를 쓰러뜨려 집에 불이 나고, 그 불로 갑돌이는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졌다.

여기서 갑돌이의 죽음을 야기하게 한 사건들의 총체, 즉 도둑의 침입,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난로가 쓰러져 불이 남, 갑돌이가 화상을 입음, 병원으로 이송됨을 하나의 사건 “뭉치”라고 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옳은 역방향의 반사실문을 구성

9) D. Lewis, “Causation”, 161쪽.

10) D. Lewis, “Introduction”, xii쪽.



할 수 있다.

(다) 갑돌이가 죽지 않았다면, 몽치라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If Kapdol had not died, Moongchi would not have occurred.)

루이스는 물론 “몽치”와 같은 것은 사건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여기서 그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잠시 살펴보자.

루이스는 “하나의 개별적 사건은 특정한 시공의 영역(spatio-temporal region)에서 발생하고” 그 사건은 그러한 “현실적이고 가능한 영역의 집합”<sup>11)</sup>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은 우연적(accidental) 성질과 본질적(essential) 성질을 갖는데, 본질적 성질이란 그 사건이 발생한 영역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성질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어느 부서의 모임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10명이 모여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고 하자. 그러나 보다 적은 수의 부원이 모였다라면 바로 그 동일한 사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임이라는 사건의 본질적 성질을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그 사건의 본질적 성질을 가장 간단하게 “모임이 있었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1시간 동안의 모임이 있었음” 그리고 “10명의 1시간 동안의 모임이 있었음” 등으로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타이타닉호의 침몰”이라는 사건은 그 배가 가라앉았다는 사실을 공통으로 갖는 시공의 영역의 집합이고, “타이타닉호의 급속한 침몰”이라는 사건은 그 배가 급속히 가라앉았다는 사실을 공통으로 갖는 시공의 영역의 집합이며, “선장의 영웅적인 노력에도 타이타닉호는 급속히 침몰함”은 그 배의 선장이 영웅적으로 노력했음에도 급속히 가라앉았다는 사실을 공통으로 갖는 시공의 영역의 집합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다른 원인과 결과를 갖기 때문에 서로 다른(different) 사건이지만 마지막 사건의 발생은 앞의 두 사건의 발생을 그리고 두번째 사건은 첫번째 사건의 발생을 각각 함축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구별되는(wholly distinct) 사건은 아니라고 말한다.<sup>12)</sup>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건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사건을 구별함으로써 루이스는 자신의 인과율에 대한 분석에 제기된 하나의 비판에 대답할 수 있게 된다.

11) D. Lewis, “Events”, 243쪽.

12) D. Lewis, “Events”, 255-256쪽.

즉 김재권 교수는 다른 사건의 일부를 이루는 한 사건의 경우는 비록 두 사건 사이에 반사실적 의존성이 있지만, 인과적 의존성은 없다고 루이스를 비판한다. 예컨대 “내가 ‘l’을 두번 연속해서 쓰지 않았다면 나는 ‘Larry’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반사실문의 두 사건은 반사실적 의존관계에 있지만 인과적 의존관계는 아니다. 그러므로 반사실적 의존관계는 인과적 의존관계를 설명하기에 너무 넓은 개념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sup>13)</sup> 이에 대해서 루이스는 그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며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사건은 전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사건들이어야 하므로, 이 두 사건이 비록 반사실적으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대답한다.<sup>14)</sup>

루이스는 사건의 본질적 성질이 얼마나 상세한 것인가에 따라 그 사건은 여러 가지 정도의 취약성(fragility)을 갖는다고 말한다. 즉 하나의 사건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본질적 성질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는 좁아지고 또 그만큼 그 사건은 취약한 사건이 된다. 예컨대 타이타닉호의 급속한 침몰이라는 사건은 타이타닉호의 침몰이라는 사건보다 더 취약하며, 선장의 영웅적인 노력에도 타이타닉호가 급속하게 침몰된 사건은 앞의 두 사건보다 더 취약하다. 여기서 루이스는 취약성이 너무 큰 사건은 인과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말하여 인과관계의 사건에 제한을 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의 본질적 성질이 너무 상세해서 그 사건의 영역에 대한 거의 모든 사실을 포함하는 사건은 실제로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인과관계를 이루는 사건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제한에 의해서 루이스는 (다)와 같은 문장에서 나타나는 뭉치와 같은 사건은 인과관계의 사건일 수 없는 매우 취약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에 의해서 비대칭성을제를 옹호하려는 시도는 애드 호크(ad hoc)적인 수정일 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인과관계의 사건들이 과도하게 취약한 사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취약한 사건이 인과관계의 사건일 수 없다고 말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매우 취약한 사건들이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 위의 예에서 갑돌이의 죽음의 원인

13) J. Kim, “Causes and Couterfactuals”, *Journal of Philosophy* 70 (1973) 571쪽.

14) D. Lewis, “Events”, 258-260쪽.

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체적인 한 사건이라기보다는 “몽치”라고 명명된 사건의 총체 아닌가? 결국 루이스가 “몽치”와 같은 것을 매우 유약한 사건이어서 인과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사건일 수 없다고 하는 유일한 근거는 그러한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인정하면 자신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루이스의 주장대로 인과관계를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로 한정할 하면 어떤 것( $e_1$ )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건( $e_2$ )가 발생하는 경우의 인과관계, 즉  $e_1$ 의 미발생이  $e_2$ 의 원인인 경우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철수가 화분에 물을 주지 않아 그 화분의 꽃이 죽었다고 가정해 보자. 즉

(라) 철수가 그 화분에 물을 주었다라면, 그 화분의 꽃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If Chulsoo had watered the plant pot, it would not have died.)

철수가 물을 주지 않은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실(fact)이다. 루이스는 물론 인과 관계를 사건 사이의 관계로만 제한하여, 사실과 사건 또는 사실과 사실의 인과관계는 설명하지 않는다. 물론 그가 사실과 사건, 사실과 사실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가 인과관계를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로만 제한한 것은 아마도 사실과 사건이나 사실과 사실의 인과관계를 사건과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만약 그가 사실과 사건, 사실과 사실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를 피하는 또하나의 이유는 사실과 사건, 사실과 사실의 인과관계를 그의 비대칭성논제에 의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나)~(라)에서 보듯이 그의 설명이 불충분함을 또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루이스는 “철수가 물을 주지 않음”과 같은 사실을 하나의 사건, 빠뜨림의 사건(event of omission)으로 설명한다.

(마) 철수가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을 빠뜨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그 화분의 꽃의 죽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If the event of omission had not occurred, the plant in the pot would not have died.)

“이 발생하지 않음”이라는 사실을 하나의 사건, 즉 “빠뜨림의 사건”으로 해석하

여, (라)를 (마)와 같이 해석한다면 이 예도 사건과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지 않고 빠뜨림”을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적절한 원인을 갖는 하나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철수가 물을 주지 않음을 하나의 행위로 간주한다면 철수의 빠뜨림은 그가 물을 주었어야 할 순간에 그가 행한 어떤 행위가 될 것이다. 예컨대 철수가 화분에 물을 주었어야 할 순간에 친구들과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철수가 화분에 물을 주지 않고 빠뜨린 “사건”은 친구와 카드놀이를 한 사건과 같은 것인가?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마)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마') 만약 철수가 카드놀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화분의 꽃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If Chulsoo's playing poker had not occurred, the plant's death would not have occurred.)

그러나 철수가 화분에 물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카드놀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철수가 카드놀이를 하지 않은 현실세계와 가장 유사한 세계에서 철수는 여전히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을 잊고 그 꽃이 죽었을 수도 있다. 철수는 인과율에 관한 철학논문을 쓰는 데 몰두하여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린 가능세계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마')는 참일 수 없고, 철수가 카드놀이를 한 것을 화분의 꽃이 죽은 것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꽃이 죽은 원인은 화분에 물을 주지 않은 것이고, 그 “사실”을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한다면 카드놀이를 함이 그 사건의 본질적 성질일 수 없고, 그 사건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부정적 사건(negative event)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빠뜨림을 하나의 부정적 사건으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또 다른 곤란한 경우를 낳게 된다.

박정희가 1979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가정하고 그의 1980년 취임식이 어땠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취임식에서는 아마도 박정희의 취임선서,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의 선포, 누군가의 축사, 축가와 축시 낭독, 그리고 삼군의장대의 사열 등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기서 “박정희의 1980년 취임식에서 있었음직한 모든 사건들의 미발생”을 “덩치”라고 하자. 그러면

(바) 덩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박정희는 1978년에 암살되지 않았을 것이다.

(If Dungchi had not occurred, Mr. Park would not have been assassinated in 1978.)

라는 참인 반사실문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철수가 물을 주지 않은 사실을 하나의 부정적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박정희의 1980년 취임식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도 하나의 부정적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바)는 미래가 달랐다면 과거도 달랐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루이스의 비대칭성논제에 대한 하나의 반례이다.

루이스는 이에 대해 덩치와 같은 사건은 그 본질적 성질이 지나칠 정도로 다양하게 선언적(disjunctive)이어서 인과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사건일 수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는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들의 선언적 결합(disjunctions)일 수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선언지들(disjuncts)이 너무 잡다하게 다양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sup>15)</sup> 그가 하나의 사건이 선언적일 수 없다고 말할 때 선언적이라 함은 “과도하게 다양한(overly varied) 선언지들이 결합됨”을 의미한다.<sup>16)</sup> 인과 관계를 구성하는 사건들도 여러가지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한 사건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다를 수 있는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오늘 오전의 부서 회의”라는 사건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1시간 이내에 끝날 수도 있고, 10명이 참석할 수도 있고 8명이 참석할 수도 있다. 또한 다소간 지루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유익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 회의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을 수는 없고 0시간이 걸릴 수는 없다. 그러나 덩치와 같은 사건은 그 사건을 구성하는 선언지들이 과도하게 다양해서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너무 취약한(fragile) 나머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뭉치와 같은 사건과는 정반대로 덩치와 같은 사건은 너무 탄력적(resilient)이어서 그것의 미발생을 생각할 수 없고 그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과도하게 다양한 선언지들이 결합된 사건으로서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사건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루이스의 답변일 것이다.

15) D. Lewis, “Events”, 266쪽.

16) 위의 글, 같은 쪽.

그러나 루이스 자신도 어떤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여길 것인가에 대한 명료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그는 “실제로 네드에 의해서 발사된 총격을 네드와 같은 소총 부대원인 테드에 의해서 발사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네드의 총격과 테드의 총격을 한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관대함을 보이기도 한다.<sup>17)</sup> 그리고 그는 또 부서회의의 여러가지 가능한 발생들도 참석인원이나 회의시간에 상관없이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덩치와 같은 사건과 부서회의와 같은 사건들 사이의 차이도 결국은 질적인 차이이기보다는 정도의 차이일 뿐 아니겠는가? “물음 주지 않음”과 같은 것을 하나의 부정적 사건으로 인정하는 한, 덩치와 같은 부정적 사건을 과도하게 선언적 사건이어서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사건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사건 비대칭성 논제를 구하기 위한 애드 호크적인 제한일 뿐인 것처럼 보인다. 결국 그는 사건 비대칭성 논제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를 구별하기 위해서 실제로 인과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많은 경우를 배제해야만 하는 댓가를 치루고 있는 셈이다.

### Ⅲ. 수정된 반사실적 분석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루이스의 비대칭성논제에 의해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인과율에 관한 직관적 통찰을 포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루이스는 인과적 의존성을 어떤 사건  $c$ 가 발생했다라면 다른 사건  $e$ 가 발생했을 것이고,  $c$ 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면  $e$ 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인과적 의존성을 이러한 반사실적 의존성에 의해서 설명하고 반사실적 의존성의 방향을 두 사건 사이의 비대칭성에 의해 설명함으로써 원인과 결과를 구별하려는 시도는 과거도 미래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루이스는 인과관계를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만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라)의 경우와 같이 어떤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17) 위의 글, 250쪽.

결과를 발생시키는 인과관계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그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음”을 하나의 부정적 사건으로 취급하는데 이는 다시 앞에서 언급한 “뭉치”나 “덩치”와 같은 사건에 관한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면 어떻게 루이스의 인과관계에 대한 반사실적 분석이 지니는 장점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을까?

루이스의 인과율에 관한 반사실적 분석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동기는 그의 인과율에 관한 설명이 인과율에 관한 중요한 두가지의 직관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주어진다. 즉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루이스의 인과율에 관한 반사실적 분석이 제시하는 1)과 2)는 각각 원인없이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예방자로서의 원인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산출자로서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에 관한 중요한 두가지 통찰을 정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스탈네이커-루이스의 의미론에 따르면  $c$ 와  $e$ 는 현실세계에서 실제로 발생한 개별적 사건들이고 현실세계는 다른 어떤 세계보다 자기자신에 더 가깝기 때문에  $c$ 가 발생한 현실세계와 가장 가까운 자신의 세계에서는  $e$ 도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c$ 와  $e$ 가 발생한 현실세계에서 2)  $[O(c) \square \rightarrow O(e)]$ 는 자명하게(trivially) 참이 된다. 그러므로 현실세계에서  $c$ 가  $e$ 의 원인이라는 것에 대한 루이스의 분석은 1)  $[\sim O(c) \square \rightarrow \sim O(e)]$ 로 환원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루이스의 인과적 의존성에 의한 인과율의 설명은  $c$ 가 발생하지 않으면  $e$ 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즉 원인이 없이는 결과도 있을 수 없음을 포함하고 있지만  $c$ 의 발생이  $e$ 의 발생을 초래하는 것은 자명한 것으로 간주해 버린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c$ 가  $e$ 의 원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당연히 의미해야 하는 두 부분 중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과관계의 설명에서 배제해 버린 것이다.

물론 두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루이스의 두 도식 1)과 2)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는 옳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2)는 자명한 것으로서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데 불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병돌이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중상을 입었다고 하자.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옳은 반사실문장을 얻을 수 있다.

(사) 병돌이가 음주운전에 의해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그는 중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반사실문장 (사)가 참이라는 사실이 병들의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그의 증상의 원인임을 충분히 다 설명하고 있는가? 아마도 루이스는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사)는 병들이 음주운전에 의해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면, 그가 증상을 입지도 않았을 것임을 말하고 있을 뿐, 즉 병들이 음주운전에 의해 사고를 내지 않은 현실세계와 가장 유사한 가능세계에서 그는 증상을 입지 않았을 것임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병들의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자신의 증상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루이스는 1)과 2)에 의해서 인과관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통찰을 포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의미론에 의하면 2)는 자명하여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 결국 인과관계를 예방자로서의 원인만으로 설명하고, 인과관계에서 산출자로서의 원인이라는 중요한 한 면을 간과하고 있는 셈이 된다.

2)를 c와 e가 발생하지 않은 현실세계와 가장 유사한 가능세계에서 c가 발생했더라면 e도 발생했을 것임을 말한다고 해석함으로써 2)가 의도하는 바인 c의 발생이 e의 발생을 초래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를 그 자체로 자명한 것이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2') \sim O(c) \square \rightarrow \{O(c) \square \rightarrow O(e)\}$$

우리는 2)를 2')으로 수정함으로써 1)과 2')에 의해서 인과율에 관한 두가지의 통찰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다시 위의 병들의 교통사고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1)과 2')에 의해서 병들의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병들의 증상의 원인이기 위해서는 (사)가 참일 뿐만아니라 아래의 반사실문장 (사')도 참이어야 한다.

(사') 병들이 음주운전에 의해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그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면 그는 증상을 입었을 것이다.)

(사')이 거짓이라는 것은 병들이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현실세계와 가장 유사한 세계에서 병들의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그의 증상을 초래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 거짓이라면 현실세계에서도 병들의 교통사고가 그의 증상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로 (사')이 참이라면 현실세계에서도 병들의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병들의 중상을 초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병들의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그의 중상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병들이 음주운전에 의해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현실세계와 가장 유사한 가능세계에서 만약 병들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다면 그는 중상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도 참이어야 한다. (사)와 (사')이 공통으로 반사실적으로 가정하는 가능세계는 병들이 음주운전에 의해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세계이다.

이렇게 루이스의 도식 2)를 복합적인 반사실문(nested counterfactual sentence)인 2')으로 수정하자는 필자의 제안이 원인과 결과를 반사실적 의존성의 방향에 의해서 설명하려는 루이스의 비대칭성논제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위의 (라)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자. 수정된 분석 도식에 따라 철수가 화분에 물을 주지 않은 사실이 화분의 꽃이 죽은 원인이라는 것을 설명해보면, (라) 뿐만아니라 다음 문장도 참이어야 한다. 즉,

(라') 철수가 화분에 물을 주었다더라면 만약 철수가 화분에 물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 꽃은 죽었을 것이다.

[If Chulsoo had watered the plant, if he had not watered it, its death would have occurred.]

도 참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철수가 화분에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화분의 꽃이 죽었다는 것은 철수가 화분에 물을 준 현실세계와 가장 유사한 가능세계에서 그 꽃은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 가능세계에서 철수가 화분에 물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 꽃은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다시 (바)의 예를 수정된 도식에 의해 분석해 보자. 루이스는 (바)와 같은 옳은 역방향의 반사실적 의존관계에 부딪혀서 “덩치”와 같은 것을 인과관계의 대상이되는 사건일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인과율에 관한 분석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수정된 분석에 의하면 (바)가 비록 옳은 역방향의 반사실적 의존관계를 보이지만 반사실문 (바)가 참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덩치( $e_a$ )”가 “박정희의 암살( $e_b$ )”의 원인임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도식 2')에 의해서  $e_a$ 가  $e_b$ 의 원인이기 위해서는 덩치가 발생하지 않고 암살사건도 발생하지 않은 현실세계와 가장 유사한 가능세계에서 덩치가 발생했다면 암살사건도 발생했어야 한다. 2')에 해당하는 다음 문장도 참이어야 한다. 즉

(바') 박정희가 1978년 암살되지 않고 1980년 대통령에 재취임했었다면 (만약 그가 재취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암살되지 않았을 것이다.)

도 참이어야 덩치가 박정희의 암살사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박정희가 암살되지 않고 1980년 대통령에 재취임한 현실 세계와 가장 유사한 가능세계를 생각해 보자. 그러한 가능세계에서 박정희가 1980년 대통령에 재취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1978년 암살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능세계에서 박정희가 1978년 암살되지도 않고 1980년 대통령에 재취임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바)와 같은 역방향의 반사실문장이 참이라고 할지라도 (바')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덩치”와 같은 사건이 “박정희의 암살”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끝으로 (다)의 예를 수정된 도식에 의해 인과관계를 설명해 보자. 뭉치와 같은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한다면 역방향의 사건과 사건 사이의 반사실적 의존성이 성립하게 되므로 루이스는 뭉치와 같은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할 없는 것이라고 주장함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의 수정된 분석도식에 따르면 뭉치를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하고, 문장 (다)가 옳은 역방향의 반사실적 의존성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갑돌이의 죽음”이 “뭉치”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수정된 반사실적 분석에 따르면 “갑돌이의 죽음”이 “뭉치”의 원인이기 위해서는 (다)가 참이어야 할 뿐만아니라 다음 문장도 참이어야 한다. 즉

(다') 갑돌이가 죽지 않고 뭉치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갑돌이가 죽었다면 뭉치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런데 (다')이 뜻하는 것은 갑돌이가 죽지 않고 뭉치도 발생하지 않은 현실 세계와 가장 유사한 가능세계에서 만약 갑돌이의 죽음이 발생했다면 뭉치도 발생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갑돌이가 죽지 않았더라면 뭉치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건들 중의 일부가 다르게 발생했을 것이고 그런 가능세계에서 그가 죽었다면 뭉치가 정확하게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임을 뜻한다. 그런데 그 세계는 갑돌이가 죽고 뭉치를 구성하는 사건이 다르게 발생한 세계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은 참이 아니고 따라서 “갑돌이의 죽음”은 “뭉치”의 원인일 수 없다.<sup>18)</sup>

요컨대 원인과 결과를 반사실적 의존성과 사건 비대칭성 논제에 의해서 설명

하려는 루이스의 분석은 원인과 결과의 대상을 명백하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제한한다. 그 결과 사실에 관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거나, 빠뜨림과 같은 사실을 하나의 부정적 사건으로 인정하여 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는 “뭉치”와 같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함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루이스의 분석을 성급하게 포기하기보다는 그 분석의 두번째 조건인 2)를 2')으로 수정함으로써 우리는 인과관계의 대상을 사건으로 한정할 필요도 없게 되고, 옳은 반사실적 의존성이 성립하는 사건(사실)과 사건(사실)이라고 모두 인과관계에 있는 것은 아님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 IV. 맺음말

인과관계가 반사실적 의존성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점에서 루이스의 주장은 옳다. A가 B의 원인이라고 믿는 것은 A의 발생 혹은 미발생이 B의 발생 혹은 미발생의 차이를 만드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즉 “A라는 사건이 발생했었다라면 B도 또한 발생했을 것이다(If A had occurred then B would have occurred)”라는 반사실문이 참인 상황이 있음을 믿는다는 것이다. 어떤 사건들이 인과관계에 있다는 일반적 믿음은 그 사건들 사이에 반사실적 의존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그 사건들에 관한 반사실문이 참이라는 믿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그렇게 만들어진 반사실문이 참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는 만큼, 그 사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심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이상이 루이스가 인과관계에 대해 제시한 반사실적 분석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루이스에 따르면 우리가 A가 B의 원인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A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B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A가 B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A가 B의 예방자라는 믿음이외에 A가 B

---

18) 보다 간단히 말해서 (다)와 (다')의 결합문인 “갑들이 죽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뭉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갑들이 죽음이 발생했다면 뭉치도 발생했을 것이다)”는 반사실문이 참이면 “갑들이 죽음이”이 “뭉치”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참이 아니므로 “갑들이 죽음이”이 “뭉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의 산출자라는 믿음, 즉 A와 B가 모두 발생하지 않은 현실세계와 가장 유사한 세계에서 만약 A가 발생했다라면 B도 발생했을 것이라는 믿음도 가져야 한다.

이상의 수정된 반사실적 분석은 루이스의 분석보다 몇가지 점에서 우월성을 갖는다. 우선 수정된 분석은 사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융통성을 갖는다. 루이스의 설명과 달리 수정안에 따르면 멍치와 같이 다른 사건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사건이나 멍치와 같이 부정적 사건을 사건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사건들도 인과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루이스는 인과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을 사건으로 제한하지만, 필자의 수정안은 사건 뿐만 아니라 사실도 인과관계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융통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필자의 수정안은 사건과 사실 사이를 구별해야만 하는 힘든 부담을 벗어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견 하면 루이스의 분석도식이 포착한듯이 보이는 인과율에 관한 두가지 통찰 중에서 실제로는 하나를 간과해 버린 반면, 필자의 수정된 분석도식은 그 두가지 통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루이스는 인과율에 관한 분석도식에서 예방자로서의 원인과 산출자로서의 원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산출자로서의 원인을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방자로서의 원인만을 설명함으로써 사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에 필자의 수정된 분석에 따르면 분명하게 산출자로서의 원인을 포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과율에 관한 두가지 기본적인 통찰을 포함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이 루이스의 분석에 비하여 필자의 수정된 분석이 갖는 우월성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외대 강사)

## 참 고 문 헌

- Davidson, D., "Causal Rela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64 (1967).
- Hume, D.,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eds.) L. A. Selby-Bigge & H. Nidditch 3rd edi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75.
- Kim, J., "Causes and Counterfactuals" *The Journal of Philosophy* 70 (1973).
- Lewis, D., *Counterfactual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tiy Press, 1973.
- \_\_\_\_\_, *Philosophical Papers* vol I & I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_\_\_\_\_, "Causation" Lewis(1986)에 재수록.
- \_\_\_\_\_, "Events" Lewis(1986)에 재수록.
- \_\_\_\_\_, "Counterfactual Dependence and Time's Arrow" Lewis(1986)에 재수록.
- Vendler, Z., "Causal Rela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64 (1967).
- Vihvelin, K., "Freedom, Causation, and Counterfactuals" *Philosophical Studies* 64 (1991).
- \_\_\_\_\_, "Causation and Counterfactual Dependence" (199+) 미발표.